

징 계 청 원 서

/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

문서번호 수학

경유

수신: 성균관대학교 총장님

참조: 교원 징계 위원회

신	결	지	시
접	일자	결	과장
수	시간	재	과장
번호	번호	공	주안
처	리	공	주안
과	과	관	주안
담	당	관	주안
자	자	관	주안

제목: 징계청원서 (대상: 수학과 조교수 김 명 호)

위인은 1991년 3월 1부로 본 대학 수학과에 임용되어 현재 조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평소 약간의 신 불안을 보이며 학생 및 동료교수에게 교육자로서는 감히 상상 할수 없는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행동을 나타내어 (참조: 징계청원사유서) 본 수학과를 극도의 비교육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.

그 동안 본 수학과 전체교수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한 없이 인내하며 오직 학과가 정상화 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.

그러나 마침내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대학 및 중 처대한 학과 평가를 앞둔 이 때에 본 수학과는 교육적인 상황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길잡을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저희 수학과 전체 교수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"학과를 파괴 하겠다"고 공언하는 동료교수인 위인을 징계에 처하여 본 수학과 및 대학의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임중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.

1995년 1월 26일

첨부: 징계 청원 사유

수학과 교수 김명돈
교수 김용태
교수 정봉화

명예교수 이용
대우전임 교수 이한서

부교수 이우영
부교수 채영
조교수 이상우
조교수 김미

올림

제 14 호 증 1